

강간과 화간의 연속선상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공 정 식*

한국심리과학센터

본 연구는 성폭력사건의 재판에서 남녀 간 가장 논란이 되는 ‘강간과 화간’ 논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남녀의 성적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행동에 있어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남성은 ‘성적 주도권 조종’, ‘성적 평판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성적 교감 부족’, ‘혼전순결의식’,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성행동에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침묵한 이유를 ‘강압적 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는 남녀 간의 성적 의사소통에서 착오 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침묵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요인으로는 ‘강압적 성’, ‘배려적 성’, ‘계산적 성’, ‘당황한 성’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Bart(1983)가 제시한 강간과 화간의 연속선상에서 동의적 성, 이타적 성, 순응적 성, 강간 등으로 구분한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강압적 성’은 ‘강간’, ‘배려적 성’은 ‘이타적 성’, ‘계산적 성’은 ‘순응적 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을 강간과 화간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설명변수가 성별로 예상됨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요어 : 강간, 화간, 여성의 동의, 여성의 성적 의사소통, 여성의 거절 또는 침묵

* 교신저자 : 공정식, 한국심리과학센터, 162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46번길 45-4, 101호
Tel : 031-253-7776, E-mail : crime0824@hanmail.net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언제든 강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한 피해자 의식이 강하고, 어려서부터 강간피해에 대한 거절과 저항적인 학습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학습이 적은 남성들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여성주의자들은 강간을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남녀 간에 성적 표현에 있어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착오로 강간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한다. 여성의 성적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은 여성의 진실한 성적 의도에 대한 동기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요구에 거절하거나 저항하더라도 이를 잘 수용하지 않고 무시한다(Jacques-Tiura et al., 2007:1476; 이명신, 2014:60 재인용). 이처럼 성적 표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의사소통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양자 간에 동일한 성경험임에도 이를 여성은 강간(rape)으로 인식하고, 남성은 화간(fornication,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교함)으로 인식하게 된다.

여성들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 비동의적 성을 경험하고 있다. Bart(1983)는 이성애적 성을 남녀 모두 원하는 '동의적 성',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만 남성에게 죄스럽고 미안해서 남성의 성적 요구에 응하는 경우인 '이타적 성', 그리고 남성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남성의 성적 요구에 응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더 좋을 때 응하는 '순응적 성', 마지막으로 여성이 진정 원하지 않는 '강간'으로 구분하여 연속선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Kelly(1987)도 법률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관계, 즉 여성들의 비동의적 성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심영희, 1989; 박선미, 1989 :296-297 재인용).

이처럼 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행위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행위를 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양성불평등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여성이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을 진정한 의미의 원함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여성 스스로 성적 참여를 원했는데도, 그 결과가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이런 점들은 남성적 시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 그동안 남성의 성교요구에 여성들은 의례적으로 비동의나 겉으로 거부적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강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라는 남성주의적 주장들이 있어 왔다.

반면에, Burgess-Jackson(1996)은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거부하지 않는 성에는 남성과 달리 설득해야 하는 부분(persuasive definition)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끌어내서 강간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변혜정, 2003:43-54).

강간과 화간은 성폭력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다. 여기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동의적 또는 강제적 성관계 가운데 왜 어떤 것은 강간으로 인정되고 또 어떤 것은 인정될 수 없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남녀의 경험과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한 누구의 경험에 근거하여 강제 또는 동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김상준, 2013: 186).

심리학 등에서는 양성불평등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강간통념이나 성역할 고정관

념 등이 여성의 거절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주의, 또는 피해자 유발이나 비난(피해자의 평판, 과거 성경험, 고소동기 등)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최인철·진정희, 2002; 윤병해·고재홍, 2006; 이정원·안상수·김혜숙, 2007; 박명숙·한인영·유서구, 2008; 박지선·김정희, 2011; 이영란·김경미·최소은, 2013; 이명신, 2014; 허민숙, 2016; 정은경, 2017). 따라서 피해자는 재피해자화되고, 강간사건을 화간사건으로 변질시켜 인식할 우려가 있다.

강간과 화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서구에서는 보통 여성의 '동의 없이' 또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성행위를 강간으로 본다. '여성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여성가족부(2010)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련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것'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임을 의미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의 신체와 성적인 사생활의 권리이다(이재상, 2004; 정은경, 2017:7 재인용).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성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기대 또는 규범화된 성역할 각본에 더 많이 의지하고, 따라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Morokoff et al., 1997; Impett & Peplau, 2003). 또한 불안수준이 높거나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수록 원치 않

는 성관계에 대한 응낙 동기가 높고(장순복, 1998; 유외숙, 2004), 성적 자기주장은 성교경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적 자기주장이 감소하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이 증가하고(박선미·송원영, 2012:265; 김영희·문승태·강희순, 2013:168), 성교의 경험이 많을수록 처음 성교경험시보다는 최근의 이성교제 시에 남성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능력이 낮아진다(최명현, 2004).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성행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사용'으로 이루어진 강제적 성행위를 강간으로 본다. 다만, 대법원 판례(2005. 7. 28. 선고 2005도3071)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의 중심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의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극단적인 폭력이나 저항없이 여성이 속으로 원했지만 겉으로 싫다고 거절한 때, 또는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은 때에 행한 성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폭행과 협박의 사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강간인지 화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할 때, 법관으로 하여금 심각한 딜레마가 될 수 밖에 없다.

성행동상황에서 여성이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진정 싫을 때, 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때 거절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좋으면서도 겉으로 싫다고 거절하는 것이다(Muehlenhard, 2011). 그 중 좋으면서 싫다고

거절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거절 (Seemingly refuse)’이라고 칭한다. 약 39%의 여대생이 이성교제 도중에 남성의 성적 제안에 ‘겉으로 거절’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도 약 31% ~ 39%까지의 비율로 나타났다(Shotland & Hunter, 1995; 양동욱, 2015:208 재인용).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는 남성이 성적 요구를 하는 시나리오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요구에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남성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의 하위요인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현실적(practical) 문제’로, 상대방의 감정불신, 준비안 된 성교, 음란한 여성상 우려, 임신위험성, 성행동이 곤란한 주변 환경 등의 내용이었고, 둘째는 ‘억제관련(inhibition-related)’으로, 도덕적 가치 또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셋째는 ‘조종(manipulative)’으로, 성을 통하여 남성이 애걸복걸하게 하고 성적으로 여성이 주도권을 쥐며, 성을 통해서 남성을 통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을 통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양동욱(2015: 205)은 성행동 상황에서 남성의 성적 요구에 여성이 거절한 것은 진심이 아니고 겉으로만 거절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6가지 요인(‘조종’, ‘교감부족’, ‘관계변화’, ‘순결의식’, ‘성규범’, ‘현실적 문제’)을 남성의 성적 요구에 여성이 속으로는 성관계를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제안을 명목상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여대생들은 ‘관계변화’, ‘순결의식’, ‘현실적 문제’ 요인을, 남대생들은 ‘성규범’, ‘조종’ 요인을 좀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남녀 간의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변혜정(2004: 61)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의 관계의 틀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성은 ‘거부하지 않는 성’

표 1.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의 관계

| 거부(동의) 여부 | 참여양태 | 욕망과 대응 | 성과 성별 | 담론의 층위 | | | |
|---------------------|---------------------|--------------|----------------------------------|--------------------------------|----------------------------|--|---------|
| | | | | 보수주의담론 (추상적 개인으로서 여성) | 반성폭력 담론 (성별화된 여성) | 다양한 맥락·성별 고려하는 체화된 여성 | |
| 거부 하지 않는 성 | 상호 동의 | 상호 참여 A영역 | 상호 원함 | 소통적 성 | 성관계 (동의/거부하지 않음) | 성폭력의 연속선 (순응적/ 이타적 성...) 강제적 성 | 긍정적 성경험 |
| | 불편한 동의 | 참여한 성 B영역 | 원하지만 불편한 성 원하지 않지만 참는 성 | 성별화된 성(신체적 폭력부재) | | 여성 맥락에 따라 성폭력 또는 성경험으로 구성 | |
| 거부한 성 (동의하지 않음) | 참여하지 않는 성 C영역 | 원하지 않는 성 | 성별화된 성(신체적 폭력사용) | 강간 (동의하지 않음/거부) | 성폭력(강간) | 부정적 성경험 = 성폭력 | |

중 ‘불편한 동의’ 형태의 참여이다. 이는 답론의 층위에 따라서 성폭력 또는 성관계로 다르게 규정된다. 그런데 이 틀 내에서는 여성이 성관계를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부한 성’, 즉 ‘겉으로 거절’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재판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되지만,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성행동에서 여성이 ‘겉으로 거절’한 이유와 ‘겉으로 침묵’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남성이 성적 요구를 했을 때, 여성의 성적 반응을 ‘속으로’, ‘겉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반응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표 2를 보면, 남성의 성적 요구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고 겉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화간(①)에 해당하고, 속으로 원하지 않고 겉으로도 싫다고 하였다면 강간(④)에 해당한다.

표 2에서 문제가 되는 여성의 성적 반응은 속으로 원했으나 겉으로 싫다고 거절한 경우(②=겉으로 거절하는 성행동), 그리고 속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겉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은 경우(③=겉으로 침묵하는 성행동)이다. ③을 ‘겉으로 침묵(Seemingly silent)하는 성행동’이라 칭한 것은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는데도

겉으로 거절하지 않는 것은 ‘침묵’의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③은 표 1에서 ‘원하지 않지만, 참는 성’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②의 경우는 일부 선행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③의 경우는 전혀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②보다 ③은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험을 여성은 강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Muchlenhard와 Hollabaugh (1988)가 제시한 시나리오 등을 각색하여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②와 ③의 이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그 이유들을 밝히고, 여성의 거절, 침묵 이유 간 관계 등을 탐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간에 성적 접근에 있어서 성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들은 어떤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들에는 어떠한 차이가

표 2. 남성의 성적 요구에 대한 여성의 반응

| | | | | | | |
|-----------------|---|-----------|------------|-----------------|---|----------------|
| 남성의 성적 요구 | → | 여성의 반응 | 속으로 원함 | 겉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음 | → | ① 화간 |
| | | | | 겉으로 싫다고 거절함 | → | ② 겉으로 거절하는 성행동 |
| | | | 속으로 원하지 않음 | 겉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음 | → | ③ 겉으로 침묵하는 성행동 |
| | | | | 겉으로 싫다고 거절함 | → | ④ 강간 |

있는가? 셋째, 선행변수와 여성이 곁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요인들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상황에 대하여 강간과 화간으로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방 법

예비조사

이 연구에서는 2개의 시나리오(1=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곁으로 거절한 이유, 2=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곁으로 침묵한 이유)를 연구대상에게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1: 한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한 남성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그 남성과 성관계를 속으로 원하지만, 곁으로 싫다고 거절합니다.

시나리오 2: 한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한 남성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그 남성과 성관계를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곁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1의 상황에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곁으로 거절’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양동욱(2015)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본 예비조사에서는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곁으로 침묵’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나리오 2를 예비연구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자유롭게

분량에 상관없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예비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서 교양강좌를 수강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위한 설문지 200부를 배포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44부를 제외하고 예비조사 분석에는 총 156부(78%)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예비조사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비율은 여자 108명(69.2%), 남자 48명(30.8%)이었고, 연령평균은 20.62세(sd=3.319)였으며, 성경험유무는 없음=88명(56.4%), 있음=64명(41.0%)이었다.

예비조사결과, 여성이 곁으로 침묵한 이유들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답변을 모두 개별 문항으로 정리한 후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하여 심리학 박사 2명에게 각 문항들을 제시하고 조언을 얻어 유사한 문항들은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문항은 총 37개였다(수집된 문항내용은 표 4와 주석 1 참조).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수도권 내 대학교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들과 한국심리과학센터의 교육생들에게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설문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무작위 설문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하여 Google의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로 보면, 여자가 216명(67.5%)이고 남자는 104명(32.5%)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평균연령은 31.59세(범위 18-60세)이고 학력별로 보면, 대

졸이상(44.7%) > 대학재학(31.3%) > 고졸이하(19.7%) 순이었으며, 혼인유무별로는 미혼(59.1%) > 기혼(38.4%) 순이었고, 성경험유무별로는 있음(67.8%) > 없음(24.1%)였다. 한편 직업별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대학생 77명(23.9%), 주부 48명(14.9%), 무직 20명(6.2%) 순이었고, 그 밖에 37개의 다양한 직업군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도구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한 이유 척도

Muehlenhard와 Hollabaugh(1988)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양동옥(2015:205)은 위와 같이 여성이 명목상 거절한 시나리오 1을 통해, 38개 문항과 6개의 요인을 발견하였다. 6개의 요인에는 '조종', '관계변화', '순결의식', '교감부족', '성규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동옥(2015:205)이 사용한

38개 문항을 신뢰도분석을 거쳐 내적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14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 24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한 이유로서 각 문항이 '그럴 듯 하다'고 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거절이유 24개 문항은 .829로 내적 일관성이 높았다.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KMO(Kaiser-Meyer-Olkin)의 측도 값이 .813으로 기준치 .50보다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도 유의하며($X^2=3577.054$, $p=.000$), 따라서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므로 요인분석에 적절하였다.

이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한 이유척도의 구조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을 찾기 위하여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eigenvalues 1 이상인 것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대상으로 scree plot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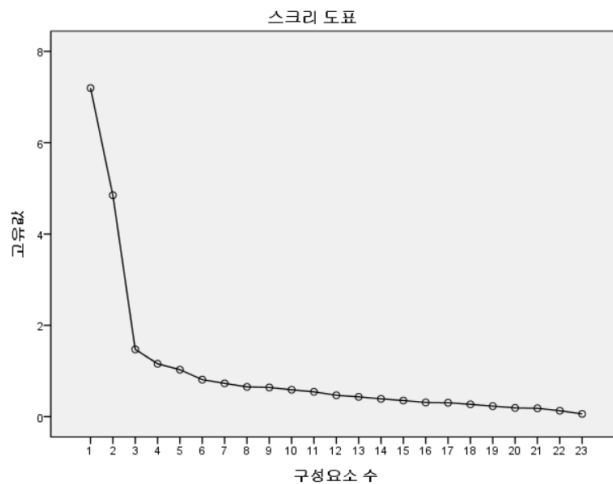


그림 1. 여성이 '겉으로 거절한' 이유척도의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표 3.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한 이유 척도 요인분석

| 문항 | 구성요소 | | | | |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요인 5 | 요인 6 |
| 상대가 애원해주길 원했다. | .842 | -.138 | -.110 | .221 | .001 | -.032 |
| 상대를 성적으로 더 흥분하게 만들고 싶었다. | .828 | -.099 | -.119 | .036 | .028 | .105 |
| 상대를 괴롭히려고 속으로는 좋으면서 일부러 싫다고 했다. | .825 | -.073 | -.111 | .005 | .088 | .035 |
| 상대가 성적으로 더 강하게 접근해주기를 원했다. | .765 | .010 | -.160 | .215 | .060 | -.030 |
| 이 만남의 주도권을 잡고 싶었다. | .637 | .104 | .104 | .223 | -.102 | .015 |
| 다른 상대와 결혼했을 때 지금의 성격함이 문제될까 두려웠다. | .009 | .821 | .080 | .155 | .191 | .058 |
| 결혼 전 성격함에 대한 주위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이 두려웠다. | .055 | .798 | .129 | .119 | .268 | .033 |
|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싶었다. | -.204 | .776 | .069 | .085 | .100 | .145 |
|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 | -.057 | .695 | .328 | -.007 | -.006 | .113 |
| 상대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 | -.178 | .161 | .828 | .124 | .002 | .025 |
|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다. | -.171 | .154 | .776 | .046 | .129 | .158 |
| 상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다. | -.143 | .028 | .751 | .025 | .215 | .182 |
|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혼란스러웠다. | .027 | .268 | .657 | -.054 | .259 | .124 |
|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염려되었다. | .087 | .054 | -.098 | .749 | .067 | .036 |
|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048 | .158 | .229 | .732 | .216 | .027 |
|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50 | .157 | -.036 | .710 | -.063 | .213 |
| 성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 .303 | -.052 | .032 | .707 | .109 | .015 |
| 성관계를 밝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 .072 | .175 | .221 | .520 | .437 | -.002 |
| 성관계 이후 상대의 관심과 애정이 식어버릴까 두려웠다. | -.015 | .168 | .072 | .082 | .877 | .124 |
| 성관계 이후 상대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되었다. | .039 | .172 | .140 | .095 | .876 | .157 |
| 상대가 성관계만을 갖고 떠나버릴 것 같았다. | .041 | .108 | .231 | .168 | .618 | .106 |
| 몸 상태(월경, 피곤, 스트레스 등)가 좋지 않았다. | -.078 | .186 | .121 | -.141 | .309 | .730 |
| 성병에 걸릴까 걱정되었다. | .195 | -.075 | .128 | .257 | .075 | .726 |
| 속옷을 잘 갖춰 입지 않았다. | -.019 | .280 | .213 | .127 | .069 | .605 |
| Eigenvalue | 5.507 | 4.475 | 1.734 | 1.572 | 1.433 | 1.208 |
| 설명변량 | 22.944 | 18.645 | 7.226 | 6.548 | 5.972 | 5.035 |
| Cronbach's α | .868 | .825 | .814 | .782 | .830 | .604 |

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6개 요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이들 요인은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걸으로 거절한 이유' 척도 점수의 전체 변량 가운데 66.371%를 설명하였다(표 3).

요인 1은 양동욱(2015)이 제시한 '조종'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5문항(예, 상대가 애원해 주길 원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인 '성적 주도권 조종'으로 명명한다. 요인 2는 양동욱(2015)이 제시한 '교감부족'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4문항(예, 상대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성적 교감부족'으로 명명한다. 요인 3은 양동욱(2015)이 제시한 '순결의식'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4문항(예, 다른 상대와 결혼했을 때 지금의 성경험이 문제될까 두려웠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혼전순결의식'으로 명명한다. 요인 4는 양동욱(2015)이 제시한 '성규범'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5문항(예,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단지 성규범이라기 보다는 여성이 '성적 평판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평판 우려'로 명명한다. 요인 5는 양동욱(2015)이 제시한 '관계변화'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5문항(예, 성관계 이후 상대의 관심과 애정이 식어버릴까 두려웠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교 후 관계변화 우려'로 명명한다. 요인 6은 양동욱(2015)이 제시한 '현실적 문제'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3문항(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현실적 문제'로 명명한다. 양동욱(2015)의 연구에서는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71에

서부터 .81까지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604에서부터 .868까지였다.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걸으로 침묵한 이유 척도

여성이 걸으로 침묵한 이유로는 시나리오 2를 제시하고 예비연구에서 수집된 3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7개 문항을 신뢰도분석을 거쳐 내적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14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¹⁾, 최종 23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여성이 걸으로 침묵한 이유에 해당하는 각 문항들은 여성의 침묵 이유로 '그럴 듯 하다'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중간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값에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걸으로 침묵한 이유로써 각 문항이 '그럴 듯 하다'고 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걸으로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요인에 관한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여성의 침묵이유 23개 문항은 .896로 내적 일

1) 제거된 문항: 거절하면 여자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자가 흥분해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관계를 하면 여자를 좋아해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속궁함을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자보다 남자의 성욕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자의 성격이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결혼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후에 서로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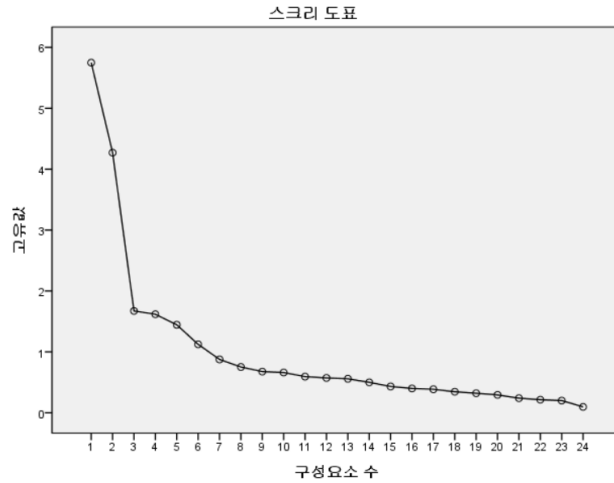


그림 2. 여성이 '겉으로 침묵한' 이유척도의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관성이 높았다.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KMO (Kaiser-Meyer-Olkin)의 측도 값이 .870으로 기준치 .50보다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도 유의하며($X^2=4517.567, p=.000$), 따라서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므로 요인분석에 적절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원래 변수들의 분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려는 목적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였고, 요인행렬의 열(column)의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열을 단순화하는 방식인 직교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한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고유값(eigenvalues)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되,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검토하였다. 4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63.987%였다(표 4).

요인 1은 9개 문항(예, 남자가 강압적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으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남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

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였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이는 '강압적 성'으로 명명한다.

요인 2는 10개 문항(예, 남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으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성교를 원하는 남성을 배려하여 거절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배려적 성'으로 명명한다.

요인 3은 2개 문항(예, 남자의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으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남자의 조건이 좋아서 거절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계산적 성'으로 명명한다.

요인 4는 2개 문항(당황스럽고 경향이 없었기 때문이다)으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성교요구가 당황스럽고 경향이 없거나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당황한 성'으로 명명한다.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α)는 .587에서부터 .924까지였다.

표 4.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침묵한 이유 척도 요인분석

| 문 항 | 구성요소 | | | |
|-----------------------------------|--------|--------|-------|-------|
|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 남자가 강압적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 .904 | -.288 | .004 | .169 |
| 남자가 강압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이다. | .903 | -.498 | -.189 | .211 |
| 남자가 폭행을 행사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 .868 | -.511 | -.097 | .099 |
| 남자에게 폭행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852 | -.252 | -.184 | .244 |
| 남자가 무섭기 때문이다. | .787 | -.249 | .173 | .002 |
| 남자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다. | .748 | -.568 | -.214 | -.079 |
| 남자가 ‘갑’이고 여자는 ‘을’이었기 때문이다. | .676 | -.007 | -.158 | .019 |
| 여자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 .621 | -.294 | .010 | .003 |
|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 .545 | -.464 | .218 | -.550 |
| 남자에게 실망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 .054 | .813 | -.040 | -.002 |
| 남자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 .000 | .789 | -.132 | -.091 |
| 남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오해할 거 같았기 때문이다. | .078 | .755 | .123 | .158 |
| 남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132 | .743 | .168 | .039 |
| 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189 | .720 | .151 | .065 |
| 남자가 싫어할 거 같았기 때문이다. | -.007 | .714 | .186 | .006 |
| 남자가 원했기 때문이다. | .065 | .713 | .174 | .016 |
| 거절하면 남자가 서운해 할 거 같았기 때문이다. | .037 | .708 | .497 | .021 |
| 남자가 떠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 .167 | .653 | .139 | -.257 |
| 원래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 .043 | .570 | .079 | .173 |
| 남자의 조건(지위, 권한 등)이 좋기 때문이다. | .296 | .066 | .845 | .028 |
|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 .474 | -.009 | .776 | .201 |
|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 -.019 | .260 | -.060 | .818 |
|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 .188 | -.086 | .225 | .802 |
| Eigenvalue | 7.203 | 4.831 | 1.529 | 1.155 |
| 설명변량 | 31.317 | 21.005 | 6.646 | 5.020 |
| Cronbach's α | .924 | .897 | .858 | .587 |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1차 연구대상 집단(수도권내 대학교 교양강좌 수강생, 한국심리과학센터 사법심리전문가 교육생)에게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설문 내용이 내키지 않거나 불편할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1차 연구대상자들을 통해 2차 연구대상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협조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만약 성관계 후에 여자는 강간을 주장하고 남자는 화간을 주장하는 상황일 때,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서 강간인지 화간인지 평가해달라고 우선 요청하였고, 각 문항별로 여성의 거절, 침묵의 이유로 '그럴 듯 하다'의 정도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구목적과 설문작성 요령안내 및 시행 등에 들어간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전체 설문지 350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사례(n=30)를 제외한 총 320명(91.4%)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 과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들

본 연구결과,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한 이유는 각 문항별 부하량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인들은 양동욱(2015)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성적 주도권 조종(요인1), 성적 교감부족(요인2), 혼전순결의식(요인3), 성적 평판우려(요인4), 성교후관계변화우려(요인5), 현실적 문제(요인6)

가 있다. 한편,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침묵한 이유는 4개의 요인이 제시되었다. 그 요인으로는 강압적 성(요인1), 배려적 성(요인2), 계산적 성(요인3), 당황한 성(요인4)이다.

성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간의 차이

성별로 보면(표 5), 시나리오 1(겉으로 거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평균값으로는 화간보다는 강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고, 남자는 여자보다 '성적 주도권 조종'(t(179)=-3.534, p=.001), '성적 평판우려'(t(318)=-2.097, p=.037)가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성적 교감부족'(t(318)=-2.097, p=.002), '혼전순결의식'(t(187)=2.973, p=.002), '현실적 문제'(t(318)=-2.523, p=.019)가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시나리오 2(겉으로 침묵)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평균값으로는 강간보다는 화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고, 남자는 여자보다 '배려적 성'(t(241)=-2.696, p=.008)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반면에 여자는 남자보다 '강압적 성'(t(318)=3.346, p=.001)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표 5. 성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 '침묵'한 이유 간의 차이

| | | 여자(N=216) | 남자(N=104) | df | t |
|---------------------------------------|--------------------|-------------|-------------|-----|----------|
| | | M(SD) | M(SD) | | |
|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 | 시나리오 1 (강간과 화간) | 3.49(1.251) | 3.31(1.239) | 316 | 1.227 |
| | 성적 주도권 조종 | 2.22(.771) | 2.58(.899) | 179 | -3.534** |
| | 성적교감부족 | 3.66(.796) | 3.34(.825) | 318 | -2.097* |
| | 혼전순결의식 | 3.42(.883) | 3.09(.966) | 187 | 2.973** |
| | 성적평판우려 | 2.73(.771) | 2.92(.694) | 318 | -2.097* |
| | 성교 후 관계변화우려 | 3.37(.926) | 3.46(.795) | 233 | -.846 |
| | 현실적 문제 | 3.18(.841) | 2.94(.796) | 318 | -2.523* |
|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 | 시나리오 2 (강간과 화간) | 2.83(1.171) | 2.91(1.261) | 309 | -.592 |
| | 강압적 성 | 2.90(.880) | 2.55(.902) | 318 | 3.346** |
| | 배려적 성 | 3.25(.754) | 3.47(.623) | 241 | -2.696** |
| | 계산적 성 | 2.38(.986) | 2.40(1.030) | 318 | -.083 |
| | 당황한 성 | 3.01(.849) | 2.93(.928) | 318 | .823 |

* $p < .05$, ** $p < .01$, *** $p < .001$

연령대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간의 차이

연령대별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의 하위요인들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다(표 6). 사후검증(Scheffe)결과 (1) 연령대별로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의 하위요인 중 '성교후관계변화우려'(F=4.857, $p = .001$) 요인에서는 20대 이하와 50대 간에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 연령대별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의 하위요인 중 '계산적 성'(F=6.600, $p = .000$) 요인에서는 20대 이하와 30대 간에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
유 간의 차이

학력별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다(표 7). 사후검증(Scheffe)결과 (1) 시나리오 1(F=5.467, $p = .005$)에 대하여 고졸이하와 대학 재학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 학력별로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의 하위요인 중 '혼전순결의식'(F= 4.857, $p = .001$)요인에서는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

표 6. 연령대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함', '침묵함' 이유 간의 차이

|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F | 유의 수준 |
|---------------------------------------|----------------|----------------|----------------|-----------------|-----------------|----------------|-------|-------|
| | | (N=37) | (N=137) | (N=50) | (N=70) | (N=22) |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 |
|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 | 성교 후 관계변화우려 | 3.69 (.817) | 3.52 (.892) | 3.17 (.825) | 3.35 (.871) | 2.84 (.858) | 4.857 | .001 |
| | 현실적 문제 | 3.23 (.902) | 3.18 (.876) | 3.15 (.684) | 2.95 (.722) | 2.63 (.986) | 2.902 | .022 |
|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 | 배려적 성 | 3.50 (.763) | 3.37 (.750) | 3.47 (.634) | 3.13 (.702) | 3.05 (.525) | 3.272 | .012 |
| | 계산적 성 | 1.97 (.935) | 2.25 (.925) | 2.93 (1.054) | 2.51 (1.028) | 2.43 (.820) | 6.600 | .000 |

* $p < .05$, ** $p < .01$, *** $p < .001$

표 7. 학력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함', '침묵함' 이유 간의 차이

| | | 고졸이하 | 대학재학 | 대졸이상 | F | 유의수준 |
|--------------------------------|--------------------|-----------------|-----------------|-----------------|-------|------|
| | | (N=61) | (N=99) | (N=137) | | |
| | | M(SD) | M(SD) | M(SD) | | |
|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 | 시나리오 1 (강간과 화간) | 3.05 (1.244) | 3.71 (1.136) | 3.47 (1.272) | 5.467 | .005 |
| | 혼전순결의식 | 3.57 (.910) | 3.28 (.957) | 3.19 (.904) | 3.735 | .025 |
| | 성적교감부족 | 3.57 (.810) | 3.73 (.829) | 3.47 (.763) | 3.048 | .049 |
| | 성교후 관계변화우려 | 3.24 (.975) | 3.75 (.811) | 3.30 (.828) | 9.868 | .000 |
| | 현실적 문제 | 2.98 (.905) | 3.30 (.829) | 3.04 (.795) | 3.807 | .023 |

* $p < .05$, ** $p < .01$, *** $p < .001$

었고, '성적 교감부족' ($F=3.048, p=.049$) 요인에서는 대학재학과 대졸이상 간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교 후 관계변화우

려' ($F=9.868, p=.000$) 요인에서는 고졸이하와 대학재학, 대학재학과 대졸이상 간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인유무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간의 차이

혼인유무별로 보면(표 8), (1) 미혼보다 기혼은 '성적 평판우려'(t(310)=-1.998, p=.047), '현실적 문제'(t(310)=2.448, p=.015) 때문에, 기혼보다 미혼은 '성교 후 관계변화우려'(t(310)=3.472, p=.001)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2) 미혼보다 기혼은 '계산적 성'(t(310)=-2.558, p=.011)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성경험유무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간의 차이

성경험유무별로 보면(표 9), (1) 성경험이 없는 집단은 '현실적 문제'(t(292)=2.251, p=.025) 때문에, 성경험이 있는 집단은 '성적 주도권

조종'(t(292)=-2.805, p=.005)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2) 성경험이 있는 집단은 '계산적 성'(t(292)=-2.386, p=.018)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간의 상관분석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한 이유와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침묵한 이유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표 10), 양요인의 하위요인들 간에 매우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 중 '강압적 성'은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의 하위요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표 8. 혼인유무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한, '침묵'한 이유 간의 차이

| 요인 | 미혼 | 기혼 | df | t | |
|---------------------------------|----------------|-----------------|----------------|-----|---------|
| | (N=189) | (N=123) | | | |
| | M(SD) | M(SD) | | | |
|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 | 성적평판우려 | 2.72 (.753) | 2.89 (.734) | 310 | -1.998* |
| | 성교 후 관계변화우려 | 3.55 (.849) | 3.20 (.905) | 310 | 3.472* |
| | 현실적 문제 | 3.20 (.849) | 2.96 (.801) | 310 | 2.448* |
|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 | 계산적 성 | 2.26 (1.002) | 2.56 (.997) | 310 | -2.558* |

*p<.05, **p<.01, ***p<.001

표 9. 성경험유무별 여성이 겉으로 '거절함', '침묵한' 이유 간의 차이

| | | 없음 | 있음 | df | t |
|---------------------------------|--------------------|-----------------|-----------------|-----|----------|
| | | (N=77) | (N=217) | | |
| | | M(SD) | M(SD) | | |
|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 | 시나리오 1 (강간과 화간) | 3.69 (1.249) | 3.35 (1.243) | 292 | 2.020* |
| | 성적 주도권 조종 | 2.11 (.884) | 2.42 (.814) | 292 | -2.805** |
| | 현실적 문제 | 3.31 (.895) | 3.06 (.811) | 292 | 2.251* |
|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 | 계산적 성 | 2.16 (1.036) | 2.48 (1.007) | 292 | -2.386* |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여성이 겉으로 '거절함', '침묵한' 이유 간의 상관분석

| | |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침묵한 이유 | | | |
|-----------------------------------|----------------|------------------------------|--------|--------|--------|
| | | 강압적 성 | 배려적 성 | 계산적 성 | 당황한 성 |
|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 | 성적 주도권 조종 | .146** | .237** | .214** | .049 |
| | 성적 교감부족 | .277** | .090 | .119* | .156** |
| | 혼전순결의식 | .253** | .065 | .080 | .238** |
| | 성적 평판우려 | .147** | .197** | .170** | .145** |
| | 성교 후 관계변화우려 | .217** | .229** | .019 | .130* |
| | 현실적 문제 | .353** | .192** | .076 | .154** |

* $p < .05$ ** $p < .01$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성이 겉으로 '거절함' 이유의 하위요인들이 시나리오 1을 판단(강간/화간)하는데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겉으로 거절하는 이유의 하위요인들이 시나리오 1을 강간 또는 화간으로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겉으로 거절한 이유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시나리오 1에 대한 강간과 화간의 연속선 상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 11). 그 결과 회귀분석상 설명력은 0.120으로 나타

표 11. 시나리오 1의 판단(강간/화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변수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p |
|-------------------|---------|------|-------------|--------|------|
| | β | 표준오차 | Beta | | |
| (상수) | 3.351 | .633 | | 5.296 | .000 |
| 성별 | .079 | .163 | .030 | .483 | .629 |
| 연령 | -.013 | .013 | -.118 | -1.035 | .301 |
| 학력 | .174 | .093 | .110 | 1.867 | .063 |
| 혼인상태 | .261 | .255 | .109 | 1.024 | .307 |
| 성경험유무 | -.231 | .196 | -.081 | -1.178 | .240 |
| 성적 주도권 조종 | -.144 | .098 | -.098 | -1.474 | .142 |
| 혼전순결의식 | .037 | .094 | .027 | .392 | .695 |
| 성적 교감 부족 | .311 | .105 | .203 | 2.968 | .003 |
| 성적 평판 우려 | -.287 | .113 | -.176 | -2.532 | .012 |
| 성교후 관계변화 우려 | -.041 | .098 | -.029 | -.414 | .680 |
| 현실적 문제 | .041 | .101 | .028 | .402 | .688 |
| R Square | | | .120 | | |
| Adjusted R Square | | | .085 | | |
| F (p) | | | 3.398(.000) | | |

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독립변인이 시나리오 1의 판단(강간/화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12%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1의 판단에 '성적 교감 부족'(t=2.968)과 '성적 평판 우려'(t=-2.532)가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값을 볼 때, '성적 교감 부족'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 즉 '성적 교감 부족'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자가 속으로 원하지만 겹으로 거절한 시나리오의 상황을 강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 '성적 평판 우려'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자가 속으로 원하지만 겹으로 거절한 시나리오의 상황을 화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성이 겹으로 '침묵한' 이유의 하위요인들이 시나리오 2를 판단(강간/화간)하는데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겹으로 침묵하는 이유의 하위요인들이 시나리오 2를 강간 또는 화간으로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겹으로 침묵하는 이유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시나리오 2에 대한 강간과 화간의 연속선상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 12). 그 결과 회귀분석상 설명력은 0.214로

표 12. 시나리오 2의 판단(강간/화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변수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p |
|-------------------|---------|------|-------------|--------|------|
| | β | 표준오차 | Beta | | |
| (상수) | .265 | .533 | | .497 | .620 |
| 성별 | .199 | .151 | .078 | 1.316 | .189 |
| 연령 | -.001 | .012 | -.011 | -.103 | .918 |
| 학력 | .091 | .087 | .058 | 1.046 | .297 |
| 혼인상태 | -.201 | .240 | -.085 | -.835 | .405 |
| 성경험유무 | .074 | .179 | .028 | .411 | .681 |
| 강압적 성 | .624 | .092 | .466 | 6.775 | .000 |
| 배려적 성 | .175 | .097 | .103 | 1.792 | .074 |
| 계산적 성 | -.200 | .082 | -.168 | -2.437 | .015 |
| 당황한 성 | .116 | .077 | .086 | 1.496 | .136 |
| R Square | | | .214 | | |
| Adjusted R Square | | | .187 | | |
| F (p) | | | 8.086(.000) | | |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독립변인이 시나리오 1의 판단(강간/화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 21.4%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2의 판단에 ‘강압적 성’($t=6.775$)과 ‘계산적 성’($t=-2.437$)이 유의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값을 볼 때, ‘강압적 성’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 즉 ‘강압적 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자가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침묵한 시나리오의 상황을 강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 ‘계산적 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자가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침묵한 시나리오의 상황을 화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학재학’ 집단과 ‘성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시나리오 1(겉으로 거절)의 상황을 화간보다는 강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고졸이하’ 집단과 ‘성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시나리오 1(겉으로 거절)의 상황을 강간보다는 화간으로 경향이 있다. 한편, 시나리오 2(겉으로 침묵)의 상황에 대하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녀 모두 강간보다는 화간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2)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성관계 상황에서 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하는 이유의 해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남녀 간의 성행동에서 의사소통에 착오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3) 연령별로 보면, '성교후관계변화우려'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걸로 거절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1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가장 낮았다. '계산적 성'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걸로 거절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10대가 가장 낮았다. (4) 학력별로 보면, '대학재학' 집단은 '성적교감부족'과 '성교후관계변화우려',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걸로 거절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고졸이하' 집단에서는 '혼전순결 의식'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걸로 거절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다. (5) 혼인유무별로 보면, 기혼은 '성적평판우려'와 '현실적 문제' 때문에, 미혼은 '성교후관계 변화우려'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면서 걸로 거절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혼은 '계산적 성' 때문에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걸로 침묵한 이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6) 성경험유무별로 보면, 성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만 걸로 거절한 이유로 '성적 주도권 조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성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걸로 침묵한 이유는 '계산적 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7) 여성이 '걸로 거절' 상황인 시나리오 1에 대하여 '성적 교감 부족'이 높을수록 강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성적 평판 우려'가 높을수록 화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이 '걸로 침

묵' 상황인 시나리오 2에 대하여 '강압적 성'이 높을수록 강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계산적 성'이 높을수록 화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여성이 걸로 '거절한' 이유와 '침묵한' 이유들은 그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으나, 양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걸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는, 즉 '침묵한 이유'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강압적 성'이다. 이는 성별로 여성이 '걸로 침묵'한 이유의 차이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남성에 대한 편견이 여성에게 더 내면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걸로 침묵한 이유가 남성을 무섭고 강압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자칫 모든 남성이 여성에게 성행동을 강제한다는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둘째, '배려적 성'이다. 이는 여성이 원치 않음에도 남성의 성적 욕구를 배려하여 이타적 관점에서 성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Bart(1983)가 제시한 '이타적 성'에 해당한다. 이 요인은 여성이 원치 않아도 남성을 성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의식이 남녀의 관념 속에 평균적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려적 성'은 여성이 상대의 마음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여성이 강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셋째, '계산적 성'이다. 이는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남성의 지위나 조건을 보고 성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Bart(1983)가 제

시한 ‘순응적 성’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계산적 성’은 법정에서 재판관들의 판단에 곤란을 주기도 한다. 여성의 마음속에서는 원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강간’으로 인식되지만, 여성이 겉으로 싫다고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한 것이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화간’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1(겉으로 거절)에 대하여 남녀 모두 화간보다는 ‘강간’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고, 반면에, 시나리오 2(겉으로 침묵)에 대하여 남녀 모두 강간보다는 ‘화간’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러한 점은 남성의 성적 요구에 여성의 속마음보다는 여성이 겉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강간 또는 화간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성적 의사소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의 성적 요구에, 여성이 동의여부에 대하여 겉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성행위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됨을 시사한다.

넷째, ‘당황한 성’이다. 이 요인은 Bart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없다. 이 요인은 성행동 상황에서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하여 여성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 속으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 이는 재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아무리 여성이 속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성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겉으로 분명하게 싫다고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요구의 의미를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수도권내로 국한되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국적

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둘째, 연구대상자들에게 제시한 시나리오가 매우 단순하다는 점에서 남녀 간의 성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요인이 고려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고, 그 밖에 2개의 시나리오 상황에서 강간과 화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유력한 변수는 통상 성별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추론은 검증되지 못했다. 이는 시나리오 상황이 좀 더 분명하지 못했거나, 또는 시나리오 속 남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 내에 성행동에서 상황적인 요소나 개인의 성향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추가적인 실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남성의 성적 요구에 여성의 반응에 따라 강간이 되기도 하고 화간이 되기도 하는 모호한 상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성적 의사소통에서, 여성이 겉으로 ‘거절함’, ‘침묵함’ 이유들에 대하여 그 구성내용을 새롭게 추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준 (2013).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 김선영 (1988).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 김영희 · 문승태 · 강희순 (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66-175.
- 박명숙 · 한인영 · 유서구 (2008).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6(2), 123-146.
- 박선미 (1989).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형사정책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89-316.
- 박선미 ·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 박지선 ·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한국피해자학회, 77-96.
- 변혜정 (2003). '성폭력' 피해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영희 (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122-160.
- 양동욱 (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2), 205-224.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유외숙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대학생 중심으로. *서울여대 특수심리치료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병해 ·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명신 (2014).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7(1), 43-97.
- 이영란 · 김경미 · 최소은 (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40-50.
- 이정원 · 안상수 · 김혜숙 (2017).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강간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장순복 (1998). 기혼여성의 성만족. *대한간호학회지*, 28(1), 201-209.
- 정은경 (2017). 성폭력 피해여성의 무고피소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현 (2004).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철 · 진정희 (2002).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희롱 사건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술진흥재단*, 409-410.
- 허민숙 (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2(2), 1-29.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 87-100.
- Morokoff, P. J., Quina, K., Harlow, L. L., Whitmire, L., Grimley, D. M., Gibson, P. R., et al.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90-804.
- Muehlenhard, C. L. (2011). Examining stereotypes

한국심리학회지 : 법

about token resistance to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 676-683.

Muehlenhard, C. L., & Hollabaugh, L. C. (1988).

Do women sometimes say no when they mean yes?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women's token resistance to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872-879.

1 차원고접수 : 2017. 10. 03.

심사통과접수 : 2017. 11. 27.

최종원고접수 : 2017. 11. 28.

Continuous line between rape and fornication Reasons why women ‘refused or was silent’ on the surface

Jung-Sik Gong

Korean Agency of Psychology Scienc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make a more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debate about ‘rape and fornica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sexual violence trials which is most controversial between men and women. In this research, we can se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sexual communication between men and women. For example, in the case of women wanting sexual behavior but refuse apparently, there was a tendency for men to think ‘manipulation for sexual leadership’, ‘concern of sexual reputation’ as it’s reasons, whereas, women considered ‘lacking of sexual interaction’, ‘prenatal purity consciousness’, ‘realistic problem’ as reasons. Also, women were more likely to think that ‘oppressive sex’ was the reason for being silent when not wanting sexual behavior. This implies that there can be mistakes or misunderstandings in sexual communication between men and women. On the other hand, four factors were extract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ason why women was silent although she didn’t want it. The factors were ‘oppressive sex’, ‘considerate sex’, ‘computational sex’, ‘embarrassed sex’. These factors are similar to those classified as agreeable sex, altruistic sex, conforming sex, rape and else on the continuous line between rape and fornication presented by Bart (1983). In other words, ‘oppressive’ can be seen as ‘rape’, ‘considerate sex’ as ‘altruistic sex’ and ‘computational sex’ as ‘conforming sex’. However, in this study, it was not clearly verified that the most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 was sex in recognizing sexual behavior between rape and fornication in previous research

Key words : Rape, fornication, women’s consent, female sexual communication, female rejection or silence